

## 집필분과

### 1.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

남북은 제2차 공동회의에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을 합의하였다. 이 요강에는 뜻풀이 방식과 속구조, 작업 방식과 완성 형식 등에 대한 큰 틀이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

##### • 사전의 뜻풀이

- ① 언어학적인 뜻풀이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전문용어를 비롯한 일부 올림말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적인 뜻풀이 방식을 적용한다.
- ② 뜻풀이 문장 구성에서는 어떤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보다 친절하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 ③ 될 수 있는 한 단어의 말뜻이나 어원 및 유래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④ 올림말에서는 발음, 원어, 문법정보, 뜻풀이, 용례, 관련어 등의 폭넓은 정보를 주되 남과 북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 • 작업 방식과 제품의 완성 형식

- ① 남과 북의 공동편찬위원회는 각기 자기 산하에 3~5개의 작업조를 구성하여 사전 편찬 사업을 밀고 나간다.
- ② 공동편찬위원회는 사전 편찬요강과 작업요강들의 심의, 사전 초고 심사 검토, 사전 편찬과 관련한 국제 토론회 조직, 매개 작업조에서 제기된 학술적인 문제들을 심의 결정하며, 작업조에서는 작업요강 작성과 자료 조사, 초고 집필 등 사전 편찬 작업을 직접 집행한다.
- ③ 남은 《표준국어대사전》, 북은 《조선말대사전》을 모체로 제각기 올림말 선정과 뜻풀이 작업, 새말 보충 작업을 진행한다.
- ④ 언어규범의 남북 단일화 문제와 사전 원고 집필에서 생기는 언어학적인 문제는 양측 부문별 작업조(언어규범 단일화조, 원고 집필조)들이 편찬위원회 모임과는 따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완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남과 북에서 제각기 만든 《겨레말큰사전》의 원고를 합쳐 완성할 때에는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단계적으로 편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편집 완성한다.
- ⑥ 완성된 원고는 남과 북의 합의 아래에서만 출판할 수 있으며 합의된 원고는 표현 하나도 자의로 고칠 수 없다.

## 2. 집필분과 업무 개요

기존 올림말 집필·교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림말분과에서 선별한 올림말에 대한 집필과 교열</li> </ul>
원고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측 원고에 대한 검토안 작성</li> <li>■ 상대측 원고 검토안에 대한 재검토안 작성</li> <li>■ 남북공동집필회의에서 협의하여 원고 확정</li> </ul>
<종합집필요강>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종합집필요강&gt; 작성 및 수정·보완</li> <li>■ 집필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연구</li> </ul>
집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필자, 교열자 연수</li> <li>■ 집필·교열 원고 및 목록 관리</li> </ul>

## 3. <종합집필요강> 작성

### 가. 목적

- 《겨레말큰사전》의 구조 및 집필 내용에 대한 체계성·통일성 확보
- 개별 어휘의 뜻풀이에서 남북 간의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준 마련
- 남북 사전 편찬 작업의 효율적 진행

### 나 진행 상황 개요

- 제9차 공동회의에서 남측은 <<겨레말큰사전>> 뜻풀이 일반요강에 대한 의견서>를, 북측은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집필요강>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집필요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제9차~제18차 공동회의(총 10회), 제1차 집필분과 실무회의(총 1회)를 통해 남북이 본집필에 공동으로 쓸 <종합집필요강>을 마련함.
- 올림말 풀이의 속구조 각 항(올림말의 표기와 배열, 발음, 활용, 원어, 품사, 지역어, 전문영역, 문법, 뜻풀이, 용례, 관련어, 참고어, 형태분석, 어원, 붙임, 갈래말, 관용구와 속담, 삽화 및 사진)에 대한 집필 방식, 뜻풀이 일반(뜻풀이의 일반원칙·형식·용어, 다의어의 배열 원칙 등), 품사별 뜻풀이 방식, 부호 사용 방식 등을 합의함.
- 현재는 본집필을 진행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추가 사항을 모아서 공동회의가 열릴 때마다 협의하여 수정·보완하고 있음.

#### 다. <<겨레말큰사전>>의 속구조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발음] [활용형] (원어) [품사] 《전문영역》 《문법정보》
뜻풀이 (지역명)    예구   예문
[관련어] [참고어]
[형태분석 및 어원]
[순화]
[불임]
[갈래말]
관용구/속담
[삽화]

### 4. 시범집필

#### 가. 목적

- 본집필 준비
- 실제 집필을 통해 남북 간 집필 내용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조율 방안 모색
- <종합집필요강>의 적용 및 수정·보완 사항 발굴
- 효율적인 집필·검토 방식 모색

#### 나. 진행 상황 개요

남북은 제11차 공동회의에서 본집필에 앞서 대강의 체제를 갖춘 <종합집필요강>을 적용하여 시범집필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제12차 공동회의에서 1차로 같은 올림말 80개를 각각 집필한 시범원고를 교환하였다. 이후 남북은 제16차 공동회의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시범원고를 교환하였다. 또한 남북은 각 측의 시범원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 ‘검토 의견서’를 교환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에서 차이가 나는 집필 내용이나 형식(뜻풀이 방식, 용례에 쓰이는 말, 기본 올림말 선정 문제, 품사 문제, 인용례 출전을 표시하는 방식 등)에 대한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함으로써 <종합집필요강>을 수정·보완해 왔다. 시범집필 및 검토 의견서 교환 상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12차 공동회의  
(2007년 12월, 금강산)

- 제1차 남측 시범원고 80개 (가격~휘)
- 제1차 북측 시범원고 80개 (가격~휘)

제13차 공동회의 (2008년 2월, 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차 남측 시범원고 200개 (가<sup>1</sup>~가날프다)</li> <li>제2차 북측 시범원고 200개 (ㄱ~가귀대기)</li> <li>제1차 북측 시범원고 남측 검토 의견서 (가격~휘)</li> </ul>
제1차 남북 집필분과 실무회의 (2008년 4월, 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차 남측 시범원고 북측 검토 의견서 (가격~휘, 가<sup>1</sup>~가날프다)</li> </ul>
제14차 공동회의 (2008년 5월,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차 남측 시범원고 500개 (가녁~가뜬히)</li> <li>제3차 북측 시범원고 500개 (ㄴ~나무모병)</li> <li>제2차 북측 시범원고 남측 검토 의견서 (ㄱ~가귀대기)</li> </ul>
제15차 공동회의 (2008년 10월, 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차 남측 시범원고 2,000개(가늑골~각석하다)</li> <li>제4차 북측 시범원고 2,000개 (나무결인쇄~날찢대다)</li> <li>제3차 남측 시범원고 북측 검토 의견서(가녁~가뜬히)</li> <li>제3차 북측 시범원고 남측 검토 의견서(ㄴ~나무모병)</li> </ul>
제16차 공동회의 (2008년 12월,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차 남측 시범원고 4,000개(각새<sup>1</sup>~감잎, 감자<sup>1</sup>~거칫하다)</li> <li>제5차 북측 시범원고 4,000개(남<sup>1</sup>~노랑탕자)</li> <li>제4차 남측 시범원고 북측 검토 의견서(가늑골~각석하다)</li> <li>제4차 북측 시범원고 남측 검토 의견서(나무결인쇄~날찢대다)</li> </ul>

## 5. 본집필

남북은 제16차 공동회의에서 본집필 일정을 합의하였다. 이는 올림말 선정, <종합 집필요강> 작성, 어문규범 단일화 작업, 새어휘 수집 등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고, 시범집필을 통해 실제 집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일정 정도 해결된 만큼, 본집필에 들어가도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17차 공동회의부터는 기존의 회의 방식과는 달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외에 따로 집필회의를 열었다. 집필회의는 남북의 원고 집필 실무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필원고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확정하는 회의이다. 본집필 일정과 집필 배분 상황 및 집필회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일정

- 각 분기별로 남북이 각각 16,000개, 연별로 64,000개의 기존 올림말 집필 및 교차 검토. 4년간 총 256,000개의 기존 올림말을 집필하기로 함.

### 나. 집필 배분 상황 및 검토 방식

집필 올림말 배분 상황	남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북측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전담 집필 항목 배분 상황	남측	의성의태어, 문법형태(토), 언어학 용어, 붙임
	북측	갈래말
검토 방식	제17차 공동회의부터 집필회의를 따로 열어 남북의 실무진이 직접 검토하고 협의하여 원고를 확정하기로 함.	

#### 다. 진행 상황 개요

##### 1) 제1차 집필회의

- 개요: 시범집필원고 13,000여 개를 4개 조가 분담하여 원고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확정 원고(1차)를 만들.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664개	1,312개	109개	243개

##### 2) 제2차 집필회의

- 개요: 제1차 집필회의에서 검토하지 못한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들.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9,713개	7,302개	403개	2,008개

##### 3) 제3차 집필회의

- 개요: 제17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들.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6,074개	12,052개	820개	3,202개

4) 제4차 집필회의

- 개요: 제18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 중 각 측 3,000개의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듦.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6,094개	5,367개	330개	397개

5) 제5차 집필회의

- 개요: 제18, 19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 중 각 측 16,208개의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듦.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6,208개	14,667개	506개	1,035개

6) 제6차 집필회의

- 개요: 제19, 20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 중 각 측 16,132개의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듦.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6,132개	13,399개	2,558개	175개

7) 제7차 집필회의

- 개요: 제20, 21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 중 각 측 17,510개의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듦.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7,510개	13,402개	3,986개	122개

8) 제8차 집필회의

- 개요: 제21, 22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 중 각 측 18,098개의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듦.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8,098개	13,835개	4,112개	151개

9) 제9차 집필회의

- 개요: 제22, 23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 중 각 측 18,098개의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듦.

- 작업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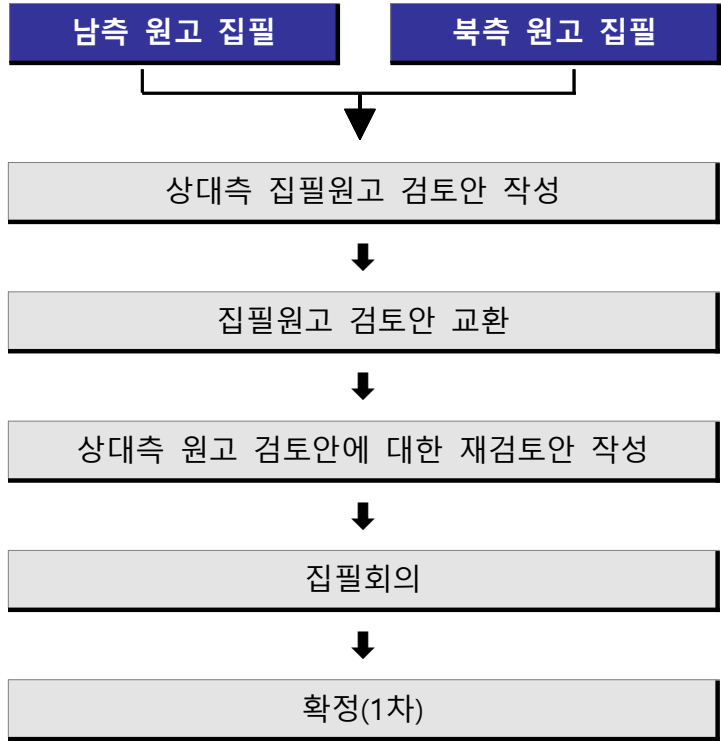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8,075개	15,244개	2,607개	224개

10) 제1~9차 집필회의 작업 결과 종합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19,568개	96,580개	15,431개	1,931개

☞ 2015년 이후 집필회의가 중단된 상태임.

라. 확정 원고(1차)를 만드는 절차



예시

복측 원고(제1차 집필 원고)

**덤벼들다** [덤벼들어, 덤벼드니] [동](자)  
 덤비며 달려들다. | 그들은 서로 “이놈! 저놈!” 하다가 나중에는 옷통을 벗어부치고 {덤벼들어서} 격투까지 일어났다.《제지공장춘》 / 나는 “아버지.” 라고 부르고 {덤벼들어도} 한번도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아버지》 / 아무리 몸이 고달프더라도 덕호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덤벼들군} 하였다.《인간문제》  
 [덤벼(<덤비-+-여)+들-+-다]

남측 검토안

**덤벼들다** [덤벼들어, 덤벼드니, 덤벼드오] [동](자)  
 ① 덤비며 달려들다. | 그들은 서로 “이놈! 저놈!” 하다가 나중에는 옷통을 벗어부치고 {덤벼들어서} 격투까지 일어났다.《제지공장춘》 / 버스 안팎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자} 그들은 버스 문을 열었고, 우리들은 모두 버스에서 뛰어내렸다.《최인석: 아름다운 나의 귀신》 / 아무리 몸이 고달프더라도 덕호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덤벼들곤} 하였다.(《인간문제》)

②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턱대고 뛰어들다. | 나는 거의 매번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지만} 참담한 실패를 안고 뒤로 나가떨어지곤 했다.《장석주: 낮선 별에서의 청춘》 / 어쩌면 이번에는 바로 이자가 영순이를 차지하려 {덤벼들지} 모른다.《최인석: 이상한 나라에서 온 스파이》

[덤비-+-어+들-+-다]



### 복측 재검토안

**덤벼들다** [덤벼들어, 덤벼드니, 덤벼드오] [동](자)

① 덤비며 달려들다. | 그들은 서로 “이놈! 저놈!” 하다가 나중에는 웃통을 벗어부치고 {덤벼들어서} 격투까지 일어났다.(《제지공장춘》) / 버스 안팎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자} 그들은 버스 문을 열었고, 우리들은 모두 버스에서 뛰어내렸다.《최인석: 아름다운 나의 귀신》

②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무턱대고 어떤 일에 뛰어들다. | 나는 거의 매번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지만} 참담한 실패를 안고 뒤로 나가떨어지곤 했다.《장석주: 낮선 별에서의 청춘》 / 확신을 못 가진 모험에 서빨리 {덤벼들} 수 없는 자인이었다.(《해동갑이》)

[덤비-+-어+들-+-다]



### 집필회의



### 제1차 합의 원고(이후 교정.교열)

**덤벼들다** [덤벼들어, 덤벼드니, 덤벼드오] [동](자)

① 덤비며 달려들다. | 그들은 서로 “이놈! 저놈!” 하다가 나중에는 웃통을 벗어부치고 {덤벼들어서} 격투까지 일어났다.(《제지공장춘》) / 악이 받칠 대로 받친 그녀는 바람벽에 걸어놓은 빨래방치로 다시금 {덤벼드는} 그 놈의 골통을 내리쳤지요.《정기수: 잔디덮인 푸른 무덤》 / 한번은 뒷산으로 나무를 주우러 갔을 때 암고양이 하나가 나에게 {덤벼든} 적이 있었다.《한창훈: 나는 세상 끝을 산다》

② 앞뒤 가리지 않고 함부로 어떤 일에 뛰어들다. |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무슨 일에도 {덤벼드는} 사람이다. / 나는 ...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기만 하면 목숨을 내걸고라도 {덤벼들었다}.《김순금: 굴러가는 태양》 /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좋기는 하겠지만, 돈이나 권세에다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덤벼들} 만큼 기수는 매력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손창섭: 치몽》 / 확신을 못 가진 모험에 선빨리 {덤벼들}수 없는 자인이었다.(《해동갑이》)

[덤비-+-어+들-+-다]

## 6. 작업 상황(남측)

### 가. 집필 현황(남측, 2017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집필	비고
2008년도	32,400개	
2009년도	28,700개	
2010년도	28,300개	
2011년도	34,400개	
2012년도	200개	
2013년	1,304개	
2014년	3,857개	
2015년	5,874개	의성의태어
2016년	11,721개	의성의태어 포함
2017년	34,571개	의성의태어, 북측분 배분 목록 포함
계	<b>181,327개*</b>	

\* 올림말 선정에서 '반영'에서 '삭제'로 처리된 올림말도 포함된 개수임.

### 나. 제1차 교열 교정(남측, 2017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교열	비고
2016년	40,000개	
2017년	170,000개	
계	<b>210,000개</b>	